

2 0 2 3 지 구 촌 교 회

가 정 예 배 순 서 지



Loving Jesus,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
Sharing Jesus!

VOL.17
2023 3-4

시므온을 가두고 풀려난 형제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복음성가

지 153장

보혈을 지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18-28

- 18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 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 19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 20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 21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 22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 23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 24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 25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 26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 27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 28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1. 애굽의 총리 요셉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온 그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만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인정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한 명이 대표로 다녀오라고 말했다가 삼일 후에는 한 명만 결박하기로 합니다. 요셉은 뜻밖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불현듯 억울하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팔아버린 자신들의 잘못을 기억하며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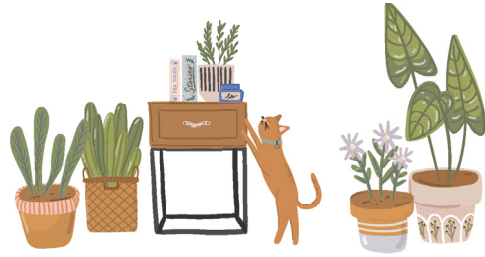
2. 시므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셉의 형들은 다시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곡식의 값으로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자루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요셉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시간을 통해 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형제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형들이 지난날을 후회하며 요셉을 버린 것을 후회하는 말을 할 때 요셉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걱정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복음성가

지 206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29-38

- 29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 30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 31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 32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 33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의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 34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 35 각기 자루를 싣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 36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 37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 38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1. 시므온을 애굽에 두고 임시로 집에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만 일부 내용은 감추었습니다. 연로한 아버지가 염려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근 상황에 곡식도 없고, 시므온과 함께 오기 위해서는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반드시 데려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포장하여 말해도 야곱은 요셉의 일을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재차 자식들을 잃을 것에 큰 상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도 때로 위기가 반복되고, 쓰디쓴 상처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았던 야곱 가정의 상처는 이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비로소 치유되고, 아물어지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 상심의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해지게 될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2. 야곱의 가정에는 온전치 못한 모습이 여전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베냐민을 편애했고, 다른 자녀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자녀들의 목숨을 담보로 걸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이런 모습 역시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리도 연약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크고 작은 역경 속에 하나님 백성의 면모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다듬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요즘 나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언제인가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나를 더욱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나요?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라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복음성가

지 227장
예수 우리 왕이여

- 01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 02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 03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 04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 05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 06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 07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 08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 09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 10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 11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송아이니라
- 12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 13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 1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 15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1.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떨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이야기 합니다. 듣고 있던 유다는 너무 늦은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칩니다. 사실 형제들은 야곱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가정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 몰래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최고 권위자였던 야곱의 결정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최고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 주님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 위기의 상황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가정의 생사가 달렸기에 베냐민을 보내면서 돈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선물을 함께 준비하여 애굽 총리에게 보내고 그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말겨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 가정의 리더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주인이 가정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가족 구성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형제들의 만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복음성가

지 54장
나의 가는 길

- 16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들이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 17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 18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 19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 20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 21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 22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 23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 24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 25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 26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 27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 28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 29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 30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 31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 32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다
- 33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 34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1. 요셉의 형제들은 지난 방문 때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동생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요셉은 형제들과 만찬을 즐기기 위해 청지기를 시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지만, 형제들은 혹시 지난번 방문 때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던 일로 자신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따로 부르는 건 아닌지 말하며 이 초대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금세 사라집니다. 청지기에게 그들의 지난 사정을 말하자 이미 곡식 값을 받았다고 대답해 주며, 너희의 하나님, 또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루에 넣어 주신 것이라고 말하며 안심시켜 줍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감정이 불안 또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2. 감옥에 갇혀 있던 시므온이 나오고 형제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입니다. 형제들의 발을 닦아주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난 이후에 요셉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요셉이 집으로 돌아오고 형제들은 집에서 가져온 선물을 요셉에게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하므로 만찬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요셉은 형제들의 집안 사정과 늙은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또한 동생 베냐민을 축복하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몰래 방에 들어가서 울고 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에 앉아 만찬을 즐기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다섯 배나 많은 음식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것에 질투하지 않고, 모두가 즐겁게 만찬을 즐기게 됩니다. 이처럼 온 가족이 모여 함께하는 식사 자리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최근에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복음성가

지 157장
빛 되신 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4-12

- 04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 05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 06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 07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 08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 09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 10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 11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 12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1. 예수님은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미워하고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진심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자'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를 맡길 때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 주로 언제인가요? 무신론자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부자의 어리석음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복음성가

지 61장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13-21

- 13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 14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 15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 16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 17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 18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 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1.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형과 유산을 잘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라 말씀하시면서도 탐욕스러운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교훈을 전하십니다. 이야기 속의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 재물을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기에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 일갈하시고,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토록 집착하여 쌓은 재물이 결코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외형적으로 부요할지는 몰라도, 탐욕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자였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결코 부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유산을 획득하고자 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또 진정한 부요함은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2. 이야기 속의 부자가 재산을 축적하는 모습을 볼 때,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 부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나름의 노력을 한 사람, 재산 관리를 위해 합리적 계획을 세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모든 것을 걸 듯 살아가는 우리에게 탐심이라는 것은 소유 이상의 의미이고, 우리의 생명과 존재 전체를 사로잡는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소유에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에 있습니까?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진정한 부요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생각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돌아볼 때,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나요?

염려하지 말라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복음성가

지 134장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22-34

- 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 23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 24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 25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 26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 27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 28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 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 30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 31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32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 33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 34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1.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과 걱정을 야기하고 결국 우리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돌보고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2.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지금 내가 염려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현재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떠한 것인지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나누어 봅시다.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신실한 청지기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복음성가

지 431장
그 날이 도적같이

- 35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 36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 37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들리라
- 38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 39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 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 41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 42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 43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 44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 45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 46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 48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당시 유대 혼인잔치는 밤에 열렸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잠들지 않고 신실하게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은 종들을 수종 들며 극진히 대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2.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분의 가르침이 제자들과 모든 사람 중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묻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면은 많은 경우 청중이 누구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대상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베드로의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기보다 두 종류의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전하십니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며, 주인은 그 청지기를 신뢰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하지만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 종들을 때리며 자신은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결국, 생각하지 않은 날에 주인이 와서 그를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맡기신 책임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깨어있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내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봅시다.

성도의 거룩한 다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49-59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복음성가

지 182장
세상의 유혹 시험이

- 49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 50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 51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 52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 53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 54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 55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 56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 57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 58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 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 59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5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하려고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기 위한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보다 가족의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한 다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거룩한 갈등이 있으신지요?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갈등을 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 구름과 바람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인 형식에 빠져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의 삶이 심판의 날을 향해 나아가는 죄인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자리에 가면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가기 전에 고발한 자와 화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화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나아가 고린도후서 5:18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곧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갈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어려움인가요?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on a white background.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히려 하브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기도 · 중보기도

아내를 위해
가장의 축복기도

우리 가정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삶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겸손으로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주시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을 존경하며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사랑하는 **자녀이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녀이름**가 어디로
가든지 **자녀이름**의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이름**과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1:9]
자녀이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이름**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이름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
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이름**가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좋은신 하나님~
제가 너무 귀한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안아주며 사랑 표현하기

3천 중보 용사 한맘 기도 각 가정에서 회개, 레위, 낫시, 미션, 라파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